

심층분석보고서

E1-재경

2026.05.10

심층분석보고서: E1 재경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1-1. LPG의 화학적 특성과 산업 정의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탄소 3개와 수소 8개로 이루어진 '프로판(Propane, C₃H₈)'과 탄소 4개·수소 10개의 '부탄(Butane, C₄H₁₀)'이 주성분인 가스를 상온에서 7~8 bar의 압력으로 액화한 연료입니다. 액화 상태에서 부피가 기체 대비 약 250분의 1로 줄어드는 특성 덕분에 상대적으로 적은 부피로 다량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반할 수 있어, 송유관·LNG 도시가스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투데이에너지 보도(2025년 10월 1일자)에 따르면 프로판은 가정용·상업용·산업용·자동차용 연료로 활용되고, 부탄은 휴대용 가스 레인지·캠핑용 부탄캔·수송용·석유화학 원료(에틸렌·프로필렌)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한국의 LPG 산업은 첫째 중동·미국 산유국으로부터의 '수입(Import)', 둘째 여수·인천·울산·평택·대산 등 대형 임해 저장 기지를 통한 '저장(Storage)', 셋째 전국 약 1,950여 개 충전소에서의 '충전(Refueling)', 넷째 가정·산업·수송·산업·석유화학사로의 '판매(Distribution)' 4단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2단계의 자본집약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신규 진입자가 쉽게 자리를 잡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산업 자체가 '에너지'와 '인프라', '대형 트레이딩'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이 LPG 유통업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며, 재경 직무 또한 일반적인 제조업 재무 업무와는 다른 결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 시장 구조와 양강 과점의 의미

가스신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 SK가스(40.6%)와 E1(34.2%) 두 회사가 국내 판매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GS칼텍스(7.2%)·SK에너지(7.1%)·S-Oil(6.1%)·HD현대오일뱅크(3.3%) 등 정유사가 부산물 LPG를 시장에 공급하여 보완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4년 1~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SK가스 39.2%, E1 33.3%, GS칼텍스 9.5%로 정유사의 약진과 동시에 양강의 합산 점유율이 70%대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양강 과점 구조는 가격 협상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이 양강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사가 산유국으로부터 VLGC(초대형가스운반선)로 들어온 LPG는 충전·판매소(소매 단계)를 거쳐 가정 취사·난방, 택시·1톤 화물·일반 LPG 승용차(수송), 음식점·산업체 보일러(상업·산업), 석유화학사의 PDH(프로판탈수소) 설비 원료(석유화학)의 4가지 채널로 소비됩니다. 채널별로 마진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하여 산업용·석유화학용은 대량 장기계약 기반의 박리다매 구조이고, 가정·상업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요 감소 추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강이 외형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실제로는 채널 믹스와 가격 정책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재경 부서 입장에서는 채널별 매출과 매출원가 구성을 정확히 분리하여 사업부 손익을 산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요구됩니다.

1-3. 최근 3~5년 주요 트렌드: 규제 완화와 석유화학 수요 부상

첫 번째 트렌드는 규제 완화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일반인의 LPG차량 구매가 전면 허용되었고(모터그래프코리아 2019년 3월 13일 보도), 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결합되어 1톤 LPG 화물차 보급을 견인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2019년 5월 19일)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보도에서 지적되었듯 규제 완화 직후 LPG 차량 등록대수는 2019년 4월 말 201만 7,066대로 오히려 2,275대 감소하여 '완화 시점이 늦었다'는 실효성 논쟁이 일어났으며, 2025년에 들어와서는 1톤 LPG 화물차 판매 증가에 비해 가정·상업용 수요 감소와 석유화학사 사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어 전체 수요는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석유화학용 수요(특히 PDH·NCC)의 부상입니다. 투데이에너지(2020년 1월 22일) 인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강병욱 연구위원의 '국내 LPG 소비 동향 및 전망' 보고서는 2024년 LPG 수요를 1,220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한화토탈·LG화학·롯데케미칼이 납사 대비 LPG의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PDH 설비를 잇따라 가동했습니다. 한화토탈의 연산 31만 톤 에틸렌 설비만 해도 100% 가동 시 연 74만 4천 톤의 프로판올 소비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가정·수송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둔화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LPG 소비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수입사의 사업 모델 또한 'B2C 중심'에서 'B2B 트레이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재경 부서 관점에서는 산업용 거래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과 신용 한도 관리, 대형 거래처와의 장기계약 회계처리(IFRS 15 수익 인식 기준의 진행률 적용 여부)가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미국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글로벌 공급 구조 변동입니다. 와이엘지에이(WLGA)와 Argus Media의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25'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LPG 공급은 3% 증가한 3억 7,000만 톤을 돌파했고, 미국이 1억 1,100만 톤(전체의 43%)을 생산하며 중동(5,250만 톤)을 두 배 이상 앞질렀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한국이 2024년 9.6% 증가한 50만 톤 이상의 수요 증분을 보여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성장 상위국'으로 분류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한국 LPG 수입사들이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며, 사우디 CP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미국 MB(Mont Belvieu) 가격 연동 거래로 옮겨가는 글로벌 트레이딩의 균형 변화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소·신재생 사업 진출 가속화입니다. SK가스의 KET·울산GPS, E1의 평택·여수 LNG 발전 인수, 양사의 캐나다 블루 암모니아·해상풍력·태양광 투자 모두 LPG 단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의 산물입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CP(Contract Price)의 변동성 심화입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2025년 12월 프로판 CP를 톤당 495달러로 인상한 데 이어 2026년 1월 525달러, 2월 545달러까지 3개월 연속 인상했으며(투데이에너지 2026년 1월 30일), 동절기 한파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수입사의 손익 변동성으로 그대로 옮겨가며, 재경 부서의 환·파생상품 관리 업무 강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4. 시장 규모와 성장률

한국석유공사 '2024년 국내 석유수급 통계 확정 공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9.6억 배럴(역대 최대)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그중 LPG와 나프타가 산업 부문 소비 5.1%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LPG 수요는 2019년 1,043만 6천 톤으로 사상 첫 1,000만 톤을 돌파한 이후 연평균 3.3% 성장세를 이어가 2024년 1,200만 톤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용(석유화학 포함) 약 59%, 수송용 약 26%, 가정·상업용 약 15% 구성이며, 2026년에는 수송용 비중이 21.4%까지 줄고 산업용이 63.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 LPG 수급 전망'). 글로벌 시장은 World Liquid Gas Association이 발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표한 통계 기준 2024년 3.47억 톤(2013년 이후 연평균 3.3% 성장)이며, 인도가 2024년 27.8백만 톤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가정용 LPG 시장에 등극했고, 2024년 중국 PDH 설비 증설 410만 톤/년이 주요 신규 수요원이었습니다(Argus Media, "Q&A: Global LPG growth defies 2024 headwinds"). 이러한 성장 패턴은 한국 LPG 수입사가 국내 수요 정체를 글로벌 트레이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성장 상위국 분류는 향후 5년간 도입 물량과 트레이딩 마진 관점에서 수입사의 매출 외형이 추가로 확장될 여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 가치사슬(Value Chain) 구조

산업의 가치사슬은 크게 Upstream, Midstream, Downstream의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Upstream 단계에서는 사우디 아람코(Aramco), UAE 아부다비, 미국 Permian Basin 셰일가스(Enterprise Products·Targa Resources·ONEOK 등)가 채굴과 가공을 담당합니다. Midstream 단계에서는 VLGC 해상운송이 핵심이며, KSS해운, 현대LNG해운, 일본 Iino, 노르웨이 BW LPG 등의 선사가 운영하고, Argus·Platts CP·MB 가격 지표를 활용한 글로벌 트레이딩이 이루어집니다. Downstream 단계에서는 국내 양강 수입사가 여수·인천·대산·울산·평택 저장기지에 입하한 다음, 약 1,950개 충전소·판매소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정·수송·산업·석유화학)에게 공급합니다. 가치사슬 안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는 Midstream의 트레이딩과 Downstream의 충전소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며, 양강 수입사는 Upstream을 제외한 Midstream과 Downstream을 모두 내재화한 수직 통합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가격 변동기에 마진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어느 한 구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 전체 손익에 곧바로 반영되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재경 부서 입장에서는 가치사슬의 어느 구간이 그 분기의 손익을 좌우하고 있는지 분리 인식하고,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1-6. 주요 플레이어와 진입장벽

국내 양강은 E1과 SK가스이며, 정유사 가운데서는 GS칼텍스·SK에너지·S-Oil·HD현대오일뱅크가 부산물 LPG를 공급합니다. KIS신용평가(2025년 12월 19일 SK가스 평가보고서)는 "LPG 수출입·저장·공급업은 대규모 저장 시설과 판매망 구축 등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사업이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대한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로는 일본 Astomos Energy(Idemitsu·Mitsubishi 합작), 싱가포르 Petredec, 영국 Trafigura, 프랑스 Geogas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 양강과 동일 항로·동일 가격대의 LPG를 트레이딩하며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사실은 곧 기존 사업자의 시장 지위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기존 사업자에게도 신규 사업 다각화 압박이 상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신용평가사 시각에서 진입장벽이 신용등급의 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회사채 발행 금리와 자금조달 전략을 다루는 재경 부서가 산업 분석을 일상 업무에 결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는, 산업의 진입장벽이 높고 수요가 산업용·석유화학으로 옮겨가는 구조 변화 속에서, 재경 담당자가 첫째 CP·MB 가격 변동성과 환율 리스크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IFRS 9 파생상품 회계 관점에서 정량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둘째 신사업 CAPEX 회수 기간과 IRR을 산업 사이클에 맞추어 분석하는 시각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핵심 역량이라는 점을 인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동종업계 주요 회사 비교

SK가스(코스피 018670)는 SK디스커버리 그룹 산하의 1985년 설립 기업으로, 울산 27만 톤·평택 21만 6천 톤 규모 LPG 저장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91%가 LPG 사업이며, 2024년 12월 세계 최초 1.2GW급 LNG-LPG Dual 발전소 '울산GPS'와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동시에 상업 가동시키며 LPG 업계 최초로 '에너지 슈퍼하이웨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전자신문 2025년 3월 27일).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시가스 도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LPG 양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산업용 연료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 관계가 형성됩니다. GS칼텍스는 정유 부산물 LPG로 2024년 1~3분기 9.5% 점유율을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으며(가스신문 2024), 글로벌 영역에서는 Astomos Energy(일본 최대 LPG 수입사), Petredec, Vitol, Trafigura 등이 양강과 협력 및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트레이더와의 거래는 단발성 스팟 거래에서부터 다년 장기계약, 스왑·코로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E1과 SK가스 모두 글로벌 트레이더와의 거래 경험이 곧 회사의 트레이딩 역량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비교

SK가스는 LPG에 더해 LNG 직수입·발전·암모니아·수소·해외 ESS까지 포괄하는 '넷제로 솔루션 프로바이더(Net Zero Solution Provider)' 비전을 추구합니다. E1은 LPG 코어에 더해 LNG 발전(평택·여수)·태양광(정선 8MW)·풍력(영월 46MW)·전기차 충전(LS이링크)·수소(캐나다 블루 암모니아)·복합충전소(Orange Plus)와 함께, 국제상사 인수 기반의 LS네트웍스(브랜드·유통)·LS증권 금융 사업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사를 비교하면, SK가스는 에너지 가치사슬 안에서의 수직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E1은 에너지 외에 금융·유통까지 포괄하는 수평적 다각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두 회사의 서로 다른 전략 방향은 향후 5~10년의 손익 구조와 자본배분 우선순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재경 부서가 다루는 결산 단위와 연결 대상의 성격 또한 두 회사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 됩니다.

2-3. 비즈니스 모델 비교

SK가스는 'LPG 수입·트레이딩 + LNG 직수입·발전'의 직선형 에너지 밸류체인을 운영하며, KIS평가보고서(2025년 12월 19일)에 따르면 별도 기준 수정영업이익률이 2~7% 수준이고 KET·울산GPS 본격 가동으로 2025년 3분기 누적 발전사업 매출 5,821억 원·영업이익 1,366억 원을 기록해 연결 매출의 10.3%를 발전 부문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E1은 매출의 약 90%가 LPG에서 발생하면서도 LS네트웍스(프로스펙스·유통·임대), LS증권(60.98% 지분, 금융), 평택에너지앤파워(LNG 발전), E1컨테이너터미널, E1물류 등 비(非)에너지 자회사를 포괄하는 복합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SK가스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전자신문 2013년 2월 18일; FnGuide Company Guide). 다시 말해 SK가스가 '에너지 전문 기업'에 가깝다면 E1은 'LPG 코어와 다종 자회사가 결합된 컨글로머리트'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결산 작업에서 연결 대상 회사 수와 회계 조정 항목 수의 차이로 곧장 이어지며, E1 재경 부서의 결산 부담이 동종 업계 대비 크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

게 됩니다.

2-4. E1과 SK가스의 강점과 약점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2024년 1~3분기 누적 SK가스 39.2%·E1 33.3%로 SK가스가 격차를 다소 벌리고 있으나, 수입 기준 양사 합산 점유율은 80%에 근접하는 양강 과점 구조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측면에서는 2024년 연결 매출 E1 11조 1,924억 원, SK가스 7조 원대로 E1의 외형이 더 크지만, 이는 LS네트웍스·LS증권 등 자회사 합산 효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SK가스가 별도 기준 수정영업이익률(외환·파생 반영) 6.5%(2024년)로 E1 대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KIS신용평가). 신사업 측면에서는 SK가스가 'LNG 직수입-저장-공급-발전' 일체 밸류체인을 KET와 울산GPS로 완성하며 한 발 앞서 있는 반면, E1은 평택에너지서비스(2024년 5,770억 원에 인수, 883MW)·여수그린에너지(495MW 집단에너지) 인수와 LS이링크(전기차)·캐나다 블루 암모니아(연 100만 톤, 2028년 도입) 등 다층적 진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E1은 LS그룹 내 사촌경영이라는 독특한 지배구조 덕분에 LS이링크·LS네트웍스·LS증권과의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성에서는 SK가스가 앞서지만 중장기 다각화 옵션 측면에서는 E1이 독자적인 무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양사의 자본조달 비용과 신용등급 흐름 또한 향후 수년간 발전·수소 사업의 자본배분 결과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양사의 재경 조직이 가장 신경 쓰는 평가 지점이 될 것입니다.

2-5. E1의 포지셔닝: B2B와 B2C 결합형 볼륨 플레이어

E1은 석유화학사·산업체에 대한 B2B 트레이딩과 가정·상업·자동차 충전소 B2C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볼륨 플레이어'입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LPG 수출(중계무역 포함)이 4,801천 톤으로 전년 동기 4,198천 톤 대비 14.4% 증가(가스신문)했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구조가 2014~2015년 이후 지속되어 '국내 LPG 수입사이자 글로벌 트레이더'라는 이중 정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은 회사의 손익이 국내 가격 정책뿐 아니라 국제 트레이딩 마진과 환율에 의해서도 의미 있게 좌우된다는 의미이며, 재경 부서가 환율과 파생상품을 다루는 비중이 일반 제조업 대비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외환 포지션의 일별 모니터링, 수출 매출의 환산 손익, 헤지 적용 시점의 결정 같은 업무는 동종 산업 외부의 일반적인 재경 직무에서는 자주 다루지 않는 영역이지만 E1에서는 일상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

2-6. 최근 1~6개월(2024년 11월~2026년 4월) 주요 이슈

최근 6개월간 산업 안팎에서 의미 있는 이슈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첫째, 2024년 12월 SK가스 울산 GPS 상업운전 개시와 KET LNG 터미널 가동으로 양강 간 LNG 사업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2025년 3월 28일 E1 정기주총에서 구자용 회장이 "LNG 발전·풍력·수소·전기차 충전 신성장 사업 가속화"를 공식화했으며(비즈니스포스트), 이는 2024년 평택 인수 이후의 자본배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2025년 11월 26일 발표된 E1 3분기 실적은 매출 2조 4,000억 원(전년 동기 -13.1%)·영업이익 909억 원(+1124.1%)으로 파생상품 손익 환입에 따른 어닝프라이즈를 기록했고, 키움증권 등이 목표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네이트 뉴스 모닝리포트). 넷째, 2025년 12월~2026년 2월 사우디 아람코의 CP가 3개월 연속 인상(프로판 495·525·545달러로 누적 인상)된 가운데 정부 물가안정 압박으로 SK가스·E1이 1월과 2월 국내 공급가격을 동결하면서, 양사 가격 미반영분이 kg당 100원 이상 누적된 상황입니다(뉴데일리 2026년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2월 3일). 다섯째, 2025년 8~10월에는 호반그룹의 (주)LS 지분 매입 시도와 LS 오너 일가의 LS에코 에너지 지분 매각(677억 원, 경영권 방어 자금 마련) 흐름 속에서 E1이 LS 지배구조 사슬의 '준지주'사로 재조명되었습니다(아시아투데이·이비엔뉴스). 이러한 일련의 이슈들은 E1이 산업 내 위치뿐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 안에서도 의미 있는 자산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경 부서의 업무 강도가 가격 변동 성과 그룹 차원 자본 이동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사합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로는, 동종업계 비교를 수행할 때 'E1 대비 SK가스 매출' 같은 표면 지표가 아니라 'LPG 도입원가·CP·환율·파생손익 효과를 제거한 수정영업이익률'과 '발전·금융·유통 자회사 포함 연결 대 별도' 차이를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재경 직무에 적합한 시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회사 개요와 연혁

E1(주)는 1984년 9월 6일 '여수에너지'로 설립되어 1991년 호유에너지, 1996년 LG칼텍스가스를 거쳐 2003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 2004년 4월 21일 LG전선그룹(현 LS그룹) 편입과 동시에 사명을 'E1'으로 변경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LPG 수입사입니다. 본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21층에 위치하며, 여수기지(연 160만 톤 처리능력)·인천기지(연 200만 톤 처리능력)·대산기지(연 50만 톤)와 전국 6개 지사·약 380여 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위키백과, E1 공식 홈페이지). E1이라는 사명은 'Life Energy 1'을 의미하며, 사명 자체에 '에너지로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미션과 'LPG 수입 1호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담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40여 년 가까운 업력은 글로벌 트레이딩 노하우, 저장기지 운영 안전 데이터, 충전소 네트워크 운영 경험 등 후발 사업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무형자산으로 축적되어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재경 부서 관점에서도 1996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19 위기 등을 거치며 축적된 자금조달·환관리 노하우가 사내 자료와 인적 자산으로 남아 있어, 새로 합류하는 인원에게도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3-2. 지배구조: 구평희 직계 사촌경영 체제

딜사이트(2018) 및 이비엔뉴스(2025년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故 구평희 명예회장 직계인 구자열(LS 이사회 의장 12.78%)·구자용(E1 회장 11.8%)·구자균(LS일렉트릭 회장 10.1%) 3형제와 차세대(구동휘 LS MnM 부사장 5.0% 등)가 E1 지분 39.9%(친족 합산 기준)를 분점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5.33%에 이릅니다. 2003년 계열분리 이후 "3남1녀 가문별 지분 비율 39.9%/26.7%/26.7%/6.7%"가 10년 넘게 유지되는 'LS그룹 내 작은 사촌경영'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며, (주)LS와 별도의 지분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인 구자은 회장과의 특수관계로 LS 그룹 계열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촌경영 구조는 의사결정 속도 측면에서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가문 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면서 무리한 투자나 단기 성과주의를 자제하는 보수적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재경 부서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라인이 '경영진-이사회-가문'으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 대형 투자 안건의 검증 절차가 길고 정밀하게 운영되며, 자료 작성과 시나리오 분석의 깊이 또한 높은 수준에서 요구됩니다. 그룹 차원에서 (주)LS의 경영권 방어 흐름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E1의 자본배분과 배당정책이 그룹 전체 자본 흐름의 중요한 변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수로 작동하기 때문에, 재경 부서의 자료가 그룹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평소보다 더 크게 확대 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3-3. 사업 구조와 부문별 매출 비중

2024년 연결 매출 11조 1,924억 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스신문 2025년 3월 11일; CEO스코어데일리 2025년 4월 30일; FnGuide). 첫째, LPG 수출입·저장·운송·판매가 매출의 약 80~90%를 차지하며, 가정·상업용, 수송용(택시·1톤 화물), 산업용·석유화학용으로 세분화됩니다. 사람인 공시 기준 별도 매출은 8조 9,891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둘째, 해외 트레이딩(직수출·중계무역·스왑)은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3개 해외지사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2024년 3분기 누적 수출 4,801천 톤을 기록(전년 +14.4%)하여 본업 못지않은 비중과 손익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셋째, LNG 발전이 2024년 신규 편입되어 평택에너지서비스(883MW, 2024년 9월 30일 인수, 인수가 5,770억 원)와 여수그린에너지(495MW, 2024년 7월 4일 산자부 인가)가 운영 및 건설 단계에 있습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정선 8MW 태양광(2020년 준공, ESS 21.2MWh 연계), 영월 46MW 풍력(2023년 준공), 인천기지 옥상 태양광, LPG 충전소 지붕 태양광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전기차·수소 충전 부문에서는 LS그룹과 합작한 'LS이링크'와 자체 브랜드 'E1 Orange Plus' 복합충전소(서울 강서, 경기 과천·고양·성남)가 가동 중입니다. 여섯째, 자회사 포트폴리오로는 LS네트웍스 81.79%(프로스펙스·LS용산타워 임대·LS증권 60.98% 모회사), E1컨테이너터미널, E1물류, E1 America LLC(휴스턴, 출자 500억 원), 넥스포에너지·넥스포솔라(태양광 운영), YEN HUNG PETROCHEMICAL JSC(베트남 LPG 냉동탱크터미널 8만 톤, 2025년 상업가동 목표)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회사가 연결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재경 부서의 결산 업무 복잡도가 동종 업계 대비 상당히 높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며, 신입~대리급 인원이 종속회사 한두 곳을 전담하면서 연결 결산 실무를 익히게 되는 학습 동선 또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3-4. 재무 현황: 5년 매출 2.5배·영업이익 2배의 성장

CEO스코어데일리(2025년 4월 30일) 분석에 따르면 E1 매출은 2019년 4조 6,083억 원에서 2024년 11조 1,924억 원으로 5년간 143% 급증했으며, 영업이익은 1,063억 원에서 2,176억 원(+104.7%)으로 함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2024년 연결 당기순이익은 658억 7,115만 원으로 전년 2,143억 원 대비 69.3%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인식된 파생상품 평가이익이 2024년에 손실로 환입된 영향이 큼니다(가스신문 2025년 3월 11일).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수준임에도 당기순이익은 급감하는 비대칭은 IFRS 9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영업외손익(금융손익)에 그대로 반영되는 회계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며, 회사 펀더멘털과 회계 인식 시점 차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회계적 노이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누적 부채비율은 약 181%(CEONEWS), PER 6.2배·PBR 0.21배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며 시가배당률은 6.7%(2023년 1주당 4,450원 현금배당 기준, 에너지신문 보도)에 이릅니다. 2025년에는 발전사업 온기 반영과 파생상품 환입으로 3분기 누적 지배주주순이익이 2024년 연간 실적의 두 배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네이트뉴스 모닝리포트 2025년 11월 26일), 일부 증권사는 2025년 매출 13.7조 원·영업이익 2,455억 원(YoY +12.8%)을 전망했습니다(한국증권 2025). 이러한 손익 흐름은 회사 펀더멘털이 견조하지만 회계상 변동성이 큰 자산을 다수 보유한 사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며, 재경 부서가 '회계상 변동성'과 '경제적 펀더멘털'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3-5. 전략 방향과 차별화 포인트

구자용 회장은 2025년 3월 28일 정기주총(LS용산타워)에서 "2024년 평택 인수를 통해 새롭게 진출한 LNG 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풍력 중심 신재생 에너지·발전용 수소·전기차 충전 내실화 등 미래 성장사업의 성과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비즈니스포스트). 이 발언은 2024년 평택 인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의 자본배분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약 60년 가까운 LPG 도입·저장·해상운송 노하우와 여수·인천·대산 410만 톤 처리능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 3대 해외지사 글로벌 트레이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도입선 다변화와 스팟 거래 대응이 용이합니다. 셋째, LS네트웍스·LS증권을 포괄한 자본·금융 시너지가 작동합니다. 넷째, LS그룹 'LS이링크' 합작을 통한 전기차 충전 전국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섯째, 베트남(꽝닌성) 8만 톤 LPG 냉동터미널과 캐나다 앨버타 블루 암모니아(2028년 100만 톤/년 도입) 등 해외 진출의 다층적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들은 LPG 단일 사업의 사이클 변동성을 흡수해주는 완충 장치로 기능하며, 재경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부별 손익을 단순 합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 전체의 변동성 완화 효과'까지 정량화하여 경영진에 보고해야 하는 또 다른 분석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3-6. 리스크 요인

회사가 직면한 리스크는 다섯 갈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CP 변동성과 환율입니다. 100% 수입 의존 구조에서 CP 인상이 가격 미반영분 kg당 100원 이상으로 누적되며 2026년 2월 기준 SK가스·E1 모두 가격 동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뉴데일리 2026년 2월 3일). 둘째, 에너지 전환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탄소세 도입으로 수송·가정 LPG 수요는 구조적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IEA의 '2028년 LPG 수요 연 1.9% 증가' 전망이 있으나 한국 등 고소득 국가에서는 가정 수요 감소가 예상됩니다. 셋째, 신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성 압박입니다. 평택 5,770억 원 인수, 여수그린에너지 추가 7,500억~1조 원 CAPEX 예상, 베트남 PF 채무보증 약 2,567억 원(자기자본의 16.99%) 등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넷째, 양강 경쟁입니다. SK가스가 LNG 직수입·울산GPS 1.2GW·KET 64.5만 KI 저장으로 '에너지 슈퍼하이웨이'를 먼저 구축함에 따라 발전 부문 원가경쟁력에서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배구조 리스크입니다. 호반그룹의 (주)LS 지분 3% 매입과 LS그룹 3세 승계 흐름에 맞물린 E1 지분 변동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리스크는 모두 재경 부서가 매월 작성하는 경영 보고서의 단골 주제이며, 각 리스크별로 시나리오 분석과 헤지 전략을 수치화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일이 일상 업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면접 활용 포인트로는, 재경 지원자라면 "2024년 매출 11조 원 중 LPG는 호황(영업이익 +133%)이지만 당기순이익은 파생손실로 -69.3%"라는 이중 메시지를 정확히 분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IFRS 9 위험회피회계 미적용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영업외손익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차별화 포인트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E1 공식 핵심가치 'E1 Work Way'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E1 공식 채용 페이지(<https://www.e1.co.kr/ko/recruit/e1WorkWay>)는 핵심가치를 세 가지로 명시합니다. 첫째, 주도적 도전(Proactive Challenge)입니다. "해답을 한 가지로 규정짓지 말자", "실패에 있어서는 누가보다 왜와 어떻게에 집중하자"는 두 가지 행동 원칙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혁신과 실행(Innovation & Execution)입니다.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비효율과 다르다는 걸 잊지 말자", "매일 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하자"는 행동 원칙이 강조됩니다. 셋째, 전문성(Expertise)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여 업무 노하우를 확장하자",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만큼은 스스로에게 떳떳해지자"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영역을 먼저 시도하되,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며, 자기 분야에서 깊이를 갖춘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회사 전반에 흐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재경 부서의 일상 업무에서 '데이터로 답을 검증한다', '절차를 지키되 마감을 지킨다',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대해 끝까지 책임진다' 같은 행동 양식으로 구체화됩니다.

4-2. 안정적 인프라 산업과 무재해·무파업 30년 DNA

E1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9년 연속 임금협상 무교섭 타결을 달성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무파업 사업장입니다(E1 PR센터 보도자료). 1992년 무재해 금탑·무재해 5배(8년) 달성, 2012년 여수기지 무재해 20배(28년) 달성 등 '안전·신뢰·장기근속' 문화가 깊으며, 매출 약 11조 원 규모임에도 사원 수는 약 338명(국민연금 신고 기준, 사람인) 수준의 '소수정예 인프라 운영형' 조직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약 7,917만 원(인크루트 2025년 정보)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종 산업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무재해·무파업 기록은 그저 통계 수치가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방식, 노사관계 관행, 안전문화가 3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의미이며, 신규 입사자에게도 자연스럽게 동일한 행동 양식을 요구하는 무형의 압력으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원 대비 매출 효율이 높다는 점은 재경 부서 인원 한 명이 다루는 결산 단위와 자료 범위가 동종 업계 평균보다 넓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입사 초기부터 다양한 회계 영역에 노출되는 학습 효과가 큼니다.

4-3. 보수적이면서도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

블라인드 후기에 따르면 "야근은 되도록 자제하지만 업무시간 집중도가 높고, 휴가·복지는 자유롭다"는 평이 다수 확인됩니다. '젊은 끈대'라는 표현으로 위계가 살아 있다는 평도 일부 보이지만, 최근 LNG·수소·풍력 신사업 진출과 'LS이링크' 합작 이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전기차 충전·복합충전소 분야에서 외부 인력 영입과 신규 직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보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변화'가 회사 문화의 현재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신규 입사자가 진입 초기에는 정해진 절차와 보고 라인을 충실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신사업·DT 영역에서 자신의 색깔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재경 부서에서도 ERP 고도화, RPA 도입, 결산 자동화 같은 디지털 프로젝트가 점차 늘고 있으며, 회계 지식과 IT 도구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원에게 추가 기회가 부여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4-4. 안전·규제·컴플라이언스 감수성

LPG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등 다중 규제 산업입니다. E1 천정식 안전담당 대표가 "빈틈없는 안전 관리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무재해를 지속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재경 직무도 자금·결산 업무뿐 아니라 ESG·컴플라이언스(ISMS-P 인증 보유)·세무조사 대응 등 규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자연스럽게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요구됩니다. 가스 산업의 특성상 한 번의 사고가 회사 전체의 평판과 재무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안전과 규제 준수를 일종의 '제1원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경 부서 또한 거래 상대방 실사, 자금세탁 방지(AML), 외환거래 신고 등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의 업무를 수행하며, 글로벌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규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진행됩니다.

4-5. 글로벌 마인드와 장기 프로젝트 관리 능력

중동(사우디·UAE), 미국(휴스턴 셰일), 캐나다(앨버타 블루 암모니아), 베트남(꽝닌성)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영어 또는 제2외국어, 글로벌 협상 스킬, 다중 통화 환율 관리, 국가별 회계기준(US-GAAP·VAS) 이해' 등이 우대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LNG 발전소·터미널·해외 PF 같은 5~10년 장기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재경 인력에게는 NPV·IRR·DCF 평가, 공정율 인식 회계, 차입 구조화(PF) 이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라는 표현은 그저 외국어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회계기준·세제·규제 환경을 빠르게 이해하고 본사 회계 원칙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베트남·캐나다 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2025~2028년 시기에는 종속회사 회계와 본사 회계 간 차이 조정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경 신규 인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6.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환·원자재 관리

KSS해운 VLGC 운임, 사우디 CP, 미국 MB(Mont Belvieu) 가격, 한국 도매가격, 환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하여 매일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 위원회'형 의사결정 구조에서, 재경은 정량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SAP 등 ERP, Power BI, 엑셀 고급 함수, 파생상품 평가모형(Black-Scholes·Monte Carlo)에 익숙한 인재가 우대된다는 점은 산업 특성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향후 AI 기반 가격예측 모델·자동화 결산 도구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분석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은 자료를 만드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만들어진 자료의 한계와 가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로 확장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니며, E1 재경 부서가 신규 인원에게 기대하는 핵심 자질 또한 이 지점에 놓여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는, '주도적 도전·혁신과 실행·전문성'의 세 가지 핵심가치는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60년 무재해와 29년 무교섭이라는 안정성, LNG·수소·해외 PF 같은 신사업 도전을 동시에 요구하는 E1의 이중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경 지원자는 이 두 측면의 균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정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직무의 핵심 역할: 일·월·분기·연 단위 업무 사이클

재경 직무의 업무 사이클은 시간 단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일 단위에서는 자금 일일 포지션 관리(원화·달러), 환·원자재 헤지 모니터링(LPG 선도계약·NDF·통화스왑 평가), CP 변동에 따른 매출원가 영향 점검, ERP(SAP) 회계 전표 처리·승인, 매출채권·매입채무 정산이 진행됩니다. 월 단위에서는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월결산 클로징, 자금 운용·조달 계획 수립, 매출채권 연령분석(Aging), LPG 재고평가(저가법), 파생상품 평가손익 추정, 그룹 '월간 경영현황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분기 단위에서는 K-IFRS 별도·연결 결산, 분기 검토(Review) 및 분기보고서 공시(DART), 외부감사인(빅4) 요청자료 대응, IR 자료 작성, 신용평가사 미팅이 진행됩니다. 연 단위에서는 연결·별도 결산 및 사업보고서 공시, 외부감사 본감사 대응, 법인세 신고(국세청 '성실신고'), 배당정책 결정(2023년 별도 당기순이익의 15% 이상 배당성향, 한국증권 인용) 및 정기주총 의안 작성,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자금조달 전략(회사채·CP·은행차입) 수립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단위마다 반복되는 업무가 있지만, 각 사이클에서 요구되는 정확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점이 재경 직무의 특징이며, 신입 시기에는 일·월 단위 업무에서 디테일을 익히는 것이 우선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분기·연 단위의 의사결정형 업무로 비중이 옮겨가는 일반적 경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2. 내부·외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 이해관계자는 다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LPG 사업부문(국내영업·해외영업·트레이딩)으로, 매출 인식과 수출 회계의 핵심 거래 파트너입니다. 둘째, 신성장사업부문(수소·풍력·태양광·EV·LNG 발전)으로, CAPEX 평가와 신사업 회계 처리에서 협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셋째, 기술안 전부문(여수·인천·대산 기지 엔지니어)으로, 자산 취득·재평가·내용연수 변경 같은 유형자산 회계 이슈에서 협업합니다. 넷째, 사업지원부문(인사·총무·법무·DT)으로, 인건비·임차료·IT 투자 등의 처리에서 연결됩니다. 다섯째, 자회사 재무팀(LS네트웍스·LS증권·평택에너지서비스·E1물류)으로, 연결 결산과 내부거래 제거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일곱 갈래로 정리됩니다. 외부감사인(통상 빅4 회계법인), 금융기관(주거래 시중은행, 외환·신탁), 신용평가사(NICE·KIS·한국기업평가), 국세청·세관(수입 부가세, 관세, FTA 원산지), 금융감독원·DART·한국거래소(공시), 해외 거래처(아람코·ADNOC·Enterprise Products·Trafigura), 한국석유공사·대한LPG협회·한국LPG산업협회(통계·정책)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재경 부서는 회사 안팎의 다수 이해관계자와 매일 접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일반 사무직 대비 상당히 큰 편이며, 이메일과 회의 응대 능력이 회계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자질로 작용합니다.

5-3. 필요 역량

요구 역량은 기술·지식, 자격증·전공, 소프트스킬의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지식 측면에서는 K-IFRS(특히 IFRS 9 금융상품·IFRS 16 리스·IFRS 15 수익), 법인세법·부가세법·국조법, 환·파생상품 회계, 원가회계(LPG 저가법, NRV), 재무분석(NPV·IRR·DCF·CAPM), ERP(SAP·Oracle), 엑셀 고급(VBA·파워쿼리·재무모델링), PPT가 핵심으로 거론됩니다. 자격증·전공 측면에서는 상경계열·산업공학·통계학 전공이 우대되며, KICPA·CFA·세무사·AICPA·FRM·CMA·IFRS Diploma 같은 자격증이 자주 우대 사항으로 거론됩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디테일과 정확성, 마감 기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 다부서 협업 커뮤니케이션, 영어 비즈니스 회화·이메일 작성, 문제정의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기밀 정보 보호 의식이 강조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우선순위로 꼽기 어려울 만큼 모든 항목이 일상 업무에서 균형 있게 요구되며, 신입 시기에는 기술·지식 측면을 빠르게 갖추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소프트스킬이 평가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일반적입니다.

5-4. KPI와 평가 포인트

핵심성과지표(KPI)는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결산 정확도와 적시성으로, 월결산 D+5,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분기 D+15, 연결 결산 무수정 의견 유지가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둘째, 자금 비용 관리로, 회사채 신용등급 유지(SK가스 'AA0/안정적' 수준 벤치마크)와 조달 금리 대비 KOFR·은행채 스프레드 관리가 평가됩니다. 셋째, 환·원자재 헤지 성과로, 헤지 비율, 손익 변동성(Volatility), 위험회피회계 적용 성공 시 영업외손익 변동성 축소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넷째, 외부감사 무수정 의견으로, 핵심감사사항(KAM)에서 LPG 재고평가와 파생상품 평가가 자주 다뤄집니다. 다섯째, 세무 리스크 관리로, 국조법(이전가격) 정기 보고서 적시 제출, 휴스턴·싱가포르·두바이·베트남 종속회사 간 거래의 정상가격 입증 이 핵심 항목입니다. 여섯째, 신사업 투자 평가로, 평택·여수·해상풍력·캐나다 블루 암모니아 등 1조 원 단위 의사결정의 NPV·IRR 검증 품질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평가 항목들은 정량과 정성이 결합되어 있으며, 단기 결산 정확성보다 중장기 자본배분의 질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평가 기초가 점차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입 인원의 KPI는 결산 정확도와 적시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자금 비용 관리·헤지 성과·신사업 평가 같은 의사결정형 KPI 비중이 점차 커지는 일반적 경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5. 대표 업무 시나리오

가상이지만 직무 현실성을 반영한 사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시나리오 1은 분기 결산 클로징 1주일입니다. 1일차에는 사업부별 매출·매출원가 마감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LPG 재고 실사 결과를 반영(저가법·정상감모)합니다. 3일차에는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외부 평가기관 PriceMaster 등 활용)를 수행하고, 4~5일차에는 종속회사 연결정산표를 취합(LS네트웍스·LS증권·평택에너지서비스)합니다. 6일차에는 외부감사인 검토 요청자료를 송부하고, 7일차에는 IR 자료 초안과 분기보고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시나리오 2는 LPG 수입 대금 환헤지 의사결정입니다. 다음 달 사우디 아람코로부터 7만 톤(약 4,500만 달러)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환율 1,395원/달러, 1개월 NDF 1,402원, 통화스왑 1,408원 상황에서, 사업부의 매출 실현 시점·내수 가격 정책·이익률 시뮬레이션을 종합하여 헤지 비율(예: 70%)과 상품(NDF·옵션·범위선물환)을 결정하고, 헤지회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시나리오 3은 신사업 NPV·IRR 평가입니다. 여수그린에너지 495MW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추가 CAPEX 7,500억 원~1조 원, 운영 25년)에 대해 LNG 도입가·전력판매단가(SMP)·열판매·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을 변수화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합니다. WACC 6~7% 가정 시 NPV·IRR·페이백·민감도(LNG ±10%, 환율 ±5%)를 도출하여 의사결정 자료로 제출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재경 부서의 업무가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서부터 전사 의사결정 보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신입 인원이 어느 시나리오에 먼저 노출되는가에 따라 초기 학습 곡선의 모양이 다소 달라지는 특징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5-6. 재경 직무가 갖는 'E1 특화' 가치

일반적인 대기업 재경과 비교했을 때 E1 재경은 네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별성을 지닙니다. 첫째, 100% 수입 의존에 따른 환·CP·운임의 3중 변동성을 일상적으로 다룬다는 점입니다. 둘째,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별도 영업외손익에 그대로 반영되어 '영업이익은 호조인데 당기순이익은 급감' 같은 비대칭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LS네트웍스·LS증권을 포함한 비전형 자회사를 가진 연결 결산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평택·여수·캐나다·베트남 등 해외 PF·M&A 평가 업무가 신입~대리급에도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에너지·트레이딩·발전·금융'을 포괄하는 4중 역량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희소성을 만들어냅니다.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서는 한두 가지 영역만 깊게 다루는 반면, E1에서는 신입 시기부터 다영역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커리어 관점에서 의미 있는 차별 요소로 작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동합니다. 향후 5~10년 사이 LNG 발전·해의 사업·신재생 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에는 재경 부서의 업무 비중이 결산에서 자본배분 자문 쪽으로 점차 이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변화는 재경 직무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으로는, 재경 지원자가 "E1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왜 디커플링되는가?" 라는 핵심 질문에 IFRS 9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헤지회계 미적용 구조로 답할 수 있는 이론적 깊이를 갖추는 것이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1. WLGA·Argus Medi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25 (요약 보도) — <https://bpnews.com/supply/roundup-current-global-lpg-dynamics>
2. Argus Media, "Q&A: Global LPG growth defies 2024 headwinds" — <https://www.argusmedia.com/en/news-and-insights/latest-market-news/2732380-q-a-global-lpg-growth-defies-2024-headwinds>
3. World Liquid Gas Association(WLGA) 공식 사이트 — <https://www.worldliquidgas.org/>
4. WLPGA, Statistical Review of Global LPG 2023 (PDF) — <https://www.smf.com.sg/wp-content/uploads/2024/07/WLPGA-Statistical-Review-2023.pdf>
5. ELGAS, "Global LPG Statistics 2025 Data, Growth & Forecast" — <https://www.elgas.com.au/elgas-knowledge-hub/business-lpg/global-lpg-statistics-2025-data-growth-forecast/>
6. Mordor Intelligence, 액화석유가스 시장 규모·성장 요인 보고서(국문) — <https://www.mordorintelligence.kr/industry-reports/liquefied-petroleum-gas-market>
7. 한국석유공사, 2024년 국내 석유수급 통계 확정 공표(2025년 6월 27일) — https://m.knoc.co.kr/sub11/sub11_1.jsp?page=1&num=920&mode=view&field=&text=&bid=NEWS&ses=USERSESSION&psize=12
8. 대한LPG협회 가격정보 — <https://www.klpg.or.kr/html/dh/board04>
9. 한국LPG산업협회 — <https://www.lpgas.or.kr/>
10. 에너지신문, '쉽지 않은' LPG시장, 2024년 전망(에너지경제연구원 인용)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85>
11. 에너지신문, 불투명성 깊어진 2025년 LPG시장(2025년 신년특집)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28>
12. 투데이에너지, 2024년까지 LPG수요 1,220만톤 전망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1>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13. 투데이에너지, 10·11월 LPG 수입가 인하(아람코 CP) —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90>
14. 투데이에너지, 2026년 2월 LPG 수입가 프로판·부탄 20달러 인상 —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93720>
15. 뉴데일리, "LPG 값 치솟는데 일단 동결"...SK가스·E1 정부 눈치(2026년 2월 3일)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02/03/2026020300137.html>
16. 가스신문, E1 2024년 매출 늘고 순이익 감소(2025년 3월 11일) —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81>
17. 가스신문, 'LPG 내수시장' SK가스 입지 다져(2024년 1~3분기) —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50>
18. 가스신문, 'SK가스·E1' 1~3분기 당기순이익 반토막 —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73>
19. CEO스코어데일리, E1 5년 새 매출 143% 급증·10조 클럽 진입(2025년 4월 30일) —
<http://m.ceoscoredaily.com/page/view/2025043017074627173>
20. 비즈니스포스트, [Who Is?] 구자용 E1 회장(2025년 주총 발언 포함)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1196
21. 비즈니스포스트, 동서발전·E1 여수그린 집단에너지사업 협약 —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7717
22. CEONEWS, [기업분석보고서] E1(부채비율 181% 등 인용) —
<https://www.ceo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43>
23. 네이트뉴스/한국증권, 키움·하나증권 E1 목표가 상향 모닝리포트(2025년 11월 26일) —
<https://news.nate.com/view/20251126n06370>
24. 한국증권, E1 사업 다각화·배당 정책 분석(2025년 매출 13.7조 전망) —
<https://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29>
25. 에너지신문, E1 여수그린에너지 인수...LNG사업 추가 —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60>
26. 아이뉴스24, LNG 강화하는 E1...인수 이어 건설까지 —
<https://www.inews24.com/view/1740859>
27. 매일일보, E1 평택에너지서비스 5,770억 원에 인수 —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212>
28. 이비엔뉴스, 소수지분의 역설 LS그룹 오너家 지배구조(2025년 3월 28일)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009>

심층 분석 보고서: E1-재경

29. 딜사이트, LS 'E1家' 세대교체 가시화(구평회 직계 가문별 지분율) —
<https://dealsite.co.kr/articles/60743>
30. 전자신문, LPG-LNG사업 연결한 SK가스(KET·울산GPS, 2025년 3월 27일) —
<https://www.etnews.com/20250327000338>
31. KIS신용평가, SK가스(주) KIS Credit Opinion(2025년 12월 19일 PDF) —
<https://kisrating.com/fileDown.do?menuCd=R8&gubun=2&fileName=rs20251219-30.pdf>
32. FnGuide Company Guide, E1(017940) 기업 스냅샷 —
https://comp.fnguide.com/SVO2/ASP/SVD_Main.asp?MenuYn=Y&NewMenuID=Y&ReportGB=B&gicod=A017940&pGB=1&stkGb=701
33. E1 공식 홈페이지, LPG 사업 소개 — <https://www.e1.co.kr/ko/business/lpg/business>
34. E1 공식 홈페이지, LNG 발전 사업 소개 — <https://www.e1.co.kr/ko/business/energy>
35. E1 공식 홈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정선·영월·인천기지) —
<https://www.e1.co.kr/ko/business/energy/renewableEnergy>
36. E1 공식 홈페이지, 자회사 소개(LS네트웍스·E1 America LLC 등) —
<https://www.e1.co.kr/ko/company/subsidiaryIntroduction>
37. E1 공식 채용사이트 — <https://e1.recruiter.co.kr/career/home>
38. E1 보도자료, 베트남 LPG 냉동탱크터미널 사업 진출 —
<https://e1.co.kr/ko/relation/publicRelation/pressRelease/28>
39. E1 보도자료,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29년 무교섭 등 조직문화 인용) —
<https://www.e1.co.kr/ko/relation/publicRelation/pressRelease/50>
40. 위키백과, E1(기업) 처리능력·연혁·지분율 —
[https://ko.wikipedia.org/wiki/E1_\(%EA%B8%B0%EC%97%85\)](https://ko.wikipedia.org/wiki/E1_(%EA%B8%B0%EC%97%85))